

배심원 역할 망각했다간 '징역'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판 전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해 '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으로 일컬어지는 사법불신을 씻어보자는 등의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유·무죄의 판단 등 사실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법원에 관여할 수 있지만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벌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 땐 최고 징역 3년〉=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 '국민사법참여제도' 내년 본격 시행... 달라지는 법정 재판 투명성 제고... 불출석 땐 과태료 부과

부과하고, 누가 봐도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이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금품수수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들었던 내용을 외부에 알릴 경우 비밀누설죄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물론 국민형사재판참여법은 외부인이

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형사재판참여법에도 '배심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직장 걱정을 떨쳐 버려도 되지만 오히려 배심원 역할을 소홀히 했다가는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 선정을 노리거나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질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진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됐는데도 법원의 출석통지를 무시한 채 불출석하거나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배심원 선서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정운찬 "학자·정치인 사이서 고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 이틀남인 1일 "출구불명"을 심경을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이날 부인, 아들과 함께 성묘를 가기 위해 방배동 자택을 나서다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때문인 듯 표정은 비교적 담담한 편이었다.

정 전 총장은 "지난달 20일 전후로 불출마를 최종 결심했다"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평소 가졌던 원칙과 정치체력 사이에서 제가 가진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이전부터 생각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놓고 고민했다"며 "학자로서 몸가짐과 정치인으로서 몸가짐 사이에서 고민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데 그렇지가 않았다"며 자신의 언행을 정치적 행보로 여기는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선 후 정치에 참여할 여지를 남긴 것 같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다. 항상 저의 정치적 수사가 부추켜 오해를 사기도 했는데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연필뉴스

고건 정운찬 그만두고 손학규 김근태 맥뭉추고

대선 앞에선 약해지는 KS

〈경기고-서울대 출신〉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낙마를 계기로 한국 엘리트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경기고-서울대' 출신의 대권 퀘직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여권의 최대 기대주였던 고건 전 총리와 정 전 총장이 대권 레이스 문턱을 밟기도 전에 중도하차했다. 또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탈당 후 독자신당 모색이라는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등 공교롭게도 '경기고-서울대' 출신 인사들의 대권 가도가 순탄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가장 먼저 대권의 꿈을 접은 고건 총리는 총리 퇴임 후인 지난 2004년 말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도 1위에 오르며 정치권에 모습을 드러낸 지 2년여만인 지난 1월 16일 대권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고건 총리의 낙마 후 대안 카드로 급부상한 정 전 총장 역시 대권후보 기근

현상에 시달린 범여권에 '단비' 같은 존재로 부각되면서 각 정당로부터 뜨거운 영입경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지난 달 30일 대선 불참을 전격 발표했다.

범여권의 최대 기대주였던 고건 전 총리를 거둔 끝에 확고한 자체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정치권 외부 출신으로서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자연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했다.

손학규 전 지사도 지난달 30일 발표한 '신진평화포럼'을 구심점으로 독자세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정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양 보인다.

역시 경기고-서울대 출신의 김근태 전 의장도 집권여당의 의장까지 지냈지만 계파 간의 견제 속에서 상처를 안은 채 원내 제2당의 잠재적 대선후보 정도로 치부되는 게 현실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홍보처 권한강화 논란

정부기관 정책광고 협의의 법제화

지금껏 훈령으로 규정됐던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 등을 의결했다고 김장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규정안은 국정홍보처장에게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신설되는 국정홍보전략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이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를 낼 경우나 정책을 발표할 때 홍보처장에게 사전에 내용, 시기,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정홍보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광고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김 홍보처장은 이번 규정안 통과로 홍보처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훈령으로 시행해왔던 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통합 정리한 것"이라며 "이 법령으로 권한이 강화됐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특히 일부 언론이 이번 규정안 처리를 '비판언론에 대한 광고통제'로 규정하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는데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논평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연필뉴스



1일 오전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2007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서 이용득 한노총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근태·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등 참석 주요인사들이 손기정 동상을 제막하고 있다. /연필뉴스

친일과 재산 오늘 첫 환수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재판조사위원회는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첫 결정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

첫 환수 대상자는 지금까지 조사계서 결정이 내려졌던 이완용, 이병길, 민영휘,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이재극 등 수십여명 가운데 복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조사위는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로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선정, 이들이 후손에게 남긴 재산을 찾아내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위는 작년 7월 24일 1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 상 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부동산처분금지 가져분신청이 받아들여졌던 토지 12필지(6천900㎡)를 시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친일파 후손 40여명이 보유한 토지 270만평(공시지가 700억원 상당)에 대해 조사계서 결정을 내렸다.

연필뉴스

DJ, 12일 자유상 수상차 독일 방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초청을 받아 12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한다.

김 전 대통령은 14일 독일외교협회를 방문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전망'을 주제로 연설한다. 또 16일에는 베를린 자유대학이 정치, 사회, 학술분야에서 자유의 이상 실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제1회 자유상'을 수상하고, 연설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방독 기간에 독일 정치인, 외교관들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갖고 독일 현지 언론과 회견을 가진 뒤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노벨평화상 정상회의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하는데 이어 미국, 일본도 순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단기간에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고중 공식지정 영어캠프/연수

영어캠프

- 참가대상: 초·중생 개인 및 그룹
- 캠프기간: 2007. 7. 20~2007. 8. 31(6주코스)
- 캠프시기: 2007년 5월 31일 까지(선착순 조기마감)
- 캠프장소: URC(University of Regina Carmeli)필리핀

최고의 목표를 갖는 안전, 둘째가 화합능력향상, 셋째가 문화체험이라는 순서를 정하고, 영어능력향상을 배가시킨다. 동시에, 즐거움속에 영어의 진취적이고 영이적 사고를 배양하며, 캠프기간 후에도 영어 공부에 대한 학습의욕을 고취시켜줄 캠프이다.

"노는 캠프가 아닌 공부하는 캠프"

학부모님들의 바램에 충실하고, 영어캠프의 주목적이 실제 영어실력향상에 있다는 사실을 각인하여 관공형태의 문화체험형태를 철저히 타파하고 4시간의 정규 수업, 2시간의 발음 및 문법 수업, 2시간의 영작 수업, 2시간의 단어 암기 등 총 1일 10시간의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실질적 영어 실력향상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인 수업 진행
 - 한국학생들만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닌 필리핀 정규 수업과정(초등학교~고등학교)에 레벨별로 배치되어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며, 수업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과학으로 한정
 - 학생 3명당 1명의 원어민 담임 선생님이 지정
 - 정규수업 이후 취침시간전까지의 시간을 같이 하며 정규 수업시간의 복습과 예습, 영작 및 단어암기와 개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점검
 - 가족사 생활을 통한 Total Care
 -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 생활상 보고
 -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자녀분들의 생활상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

영어연수

- 연수대상: 중학교 이상 성인까지
- 본인이나 스스로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으며, 자기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함
- 연수기간: 4주, 6주, 8주 과정(1일 단위로 운영 가능) 연수기간은 연중 자유로이 선택
- 연수장소: 홀스타이(마닐라) 오티가스

단기간에 집약적인 영어 학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영어능력의 향상을 원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최고의 목표를 학업능력향상으로 정하고, 문화체험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생의 level에 맞는 철저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학생의 영어 능력을 신장 시켜 주는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정은 Grammar, Reading, 주제토론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 선생님이 매일 수업을 진행합니다. TOEFL, TOEIC, IELTS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있으며, Reading, Speaking, Writing, 문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원어민과 맞춤형 수업진행으로 효율을 극대화
- 원어민 선생님의 자질이 우수
- 프로그램 우수
- 선생님이 방문 수업, 이동시간의 절약 및 안전 보장

함께가 특별 이벤트

캠프 및 연수 참가자 전원에게 전화영어 1개월 무료수강

한국고중 공식지정 전화영어회사

상담 및 문의: **1588-8010**

www.wawcamp.com

영어교육의 새로운 대안

www.waw05.com

싱그러운 새 봄을 맞아 모디쉬갤러리가 신속 오픈이벤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디쉬갤러리 Open Sale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소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소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왕족 4인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환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HS-6720 비트

1,990,000원 (5조한정판매)

JSD-비트Q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미가엘 5단서랍장

1,990,000원

아시아 2.2 소파

1,990,000원

미가엘 화장대

1,990,000원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1,990,000원

Open기념 황트실침대, 장수운들침대 한정판매

미가엘 거실장식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점

☎0621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1350-8764